

쿠팡 곰곰 도시락 하나로 공장 키운 가족 이야기

2025. 11. 3.

요리에 진심인 엄마, 식품공학을 전공한 두 딸,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아들. 이 가족이 힘을 모아 만드는 도시락은 쿠팡을 만난 후, 하루에 수천 개씩 팔리며 ‘국민 도시락’으로 성장했습니다. 가족들은 “쿠팡이 아니었다면 이 특별한 도시락을 세상에 선보일 수 없었을 것”이라고 말합니다. 곰곰 도시락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.



CPLB 파트너사 ‘(주)이에스그린푸드’의 대표인 어머니, 공장 운영을 담당하는 막내 아들, 레시피를 담당하는 두 딸. 가족들은 힘을 모아 곰곰 도시락을 만든다.

“요리에 빠진 엄마, 온종일 공부하는 두 딸, 기계 잘 다루는 아들.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시나요?”

사실 저희는 곰곰 도시락 만드는 가족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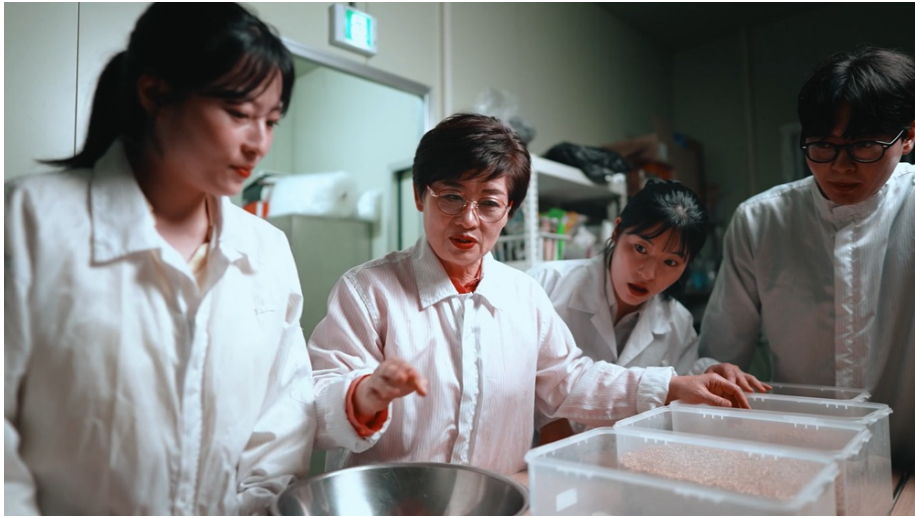
세 남매와 함께 만든 이 곰곰 도시락. 하루에 10개, 100개, 1000개씩 팔리기 시작하더니 완전 대박 났어요!



공장 문 열고 들어설 때마다 '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'하고 코 끝이 찡해질 때가 많아요. 잘나가는 큰 공장들 보면서 '우리도 가능할까?'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했죠. 근데 쿠팡 곰곰과 함께 하는 순간 진짜 가능한 일더라고요. 이 제품, 쿠팡 아니었으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.



처음 제품 개발할 때, 쿠팡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내려오셔서 레시피, 포장, 위생 등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셨어요. 쿠팡이 저한테는 마치 성공을 위한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느낌?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.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.



쿠팡과 함께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몇 달 동안 제품 개발에 올인했죠. 그렇게 만든 도시락이 지금은 진천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요. 쿠팡 곰곰 덕분에 전 국민이 먹는 도시락이 된 거죠.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.



앞으로도 쿠팡과 함께 상생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겠습니다!”

곰곰 도시락 가족 사례와 같이, 쿠팡은 중소기업자들의 성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